

卷之三

李萬이 지나가는 화를 면
가을은 가을 차림입니다.

나 는 아 무 걱 청 도 없 어
 불 속 의 다 헤 일 듯 합 나 아.

가슴속에서 하나 둘 셋여지곤 별을

이제 다 북해로 가는

해
어

아
클
어

노
는

거
다
하
이
고

來日 발이
놓은
가
다
기
고

아직 나의 青春이 다 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上

출판사

변민

운동주대표시 해설과 감상

석화 편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리화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尹东柱代表诗解说与欣赏/石华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 5

ISBN 7-80698-700-2

I. 尹... II. 石...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049300号

尹东柱代表诗解说与欣赏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吉林市京源彩印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3.75 字数: 100 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700-2 / I · 98 (民文)

版次: 2006年6月第1版

2006年6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30.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석화(石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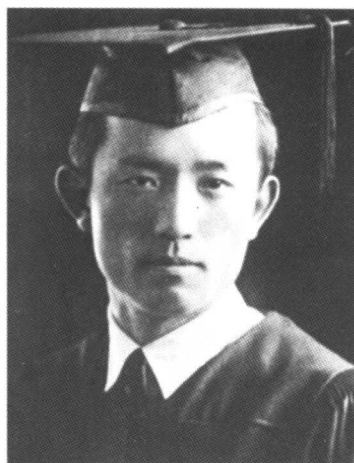
편자 석화는 1958년 7월 4일 길림성 룡정에서 태어나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와 한국 배재대학 인문대학원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하였다. 연변인민방송국에서 음악부 편집, 문학부 주임을 담당하였으며 현재 연변작가협회기관지인 《연변문학》월간사에서 시문학 담당편집을 맡고있다.

1976년 5월 9일 《연변일보》에 첫 시를 발표하고 1989년 첫 시집 《나의 고백》을 상재하였다. 이어 《꽃의 의미》, 《세월의 귀》 등 시집과 문학평론집 《시와 삶의 대화》외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고 《천지문학상》, 《장백산문학상》, 《지용시문학상》, 《해외동포문학상》 등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시 《연변》과 다수의 가사작품이 중소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사이버공간에 《석화시인의 시카페》(<http://cafe.daum.net/seokhwa>)를 운영하고있다. 이메일주소는 다음과 같다. (shihua@hanmail.net)



연희전문학교 입학초기의 모습(왼쪽 아래 글씨는 윤동주의 서명)



연희전문학교 졸업앨범 사진



윤동주와 절친한 친구였던 정병욱(오른쪽, 전 서울대 교수)이 연희전문학교 졸업반시절 함께 찍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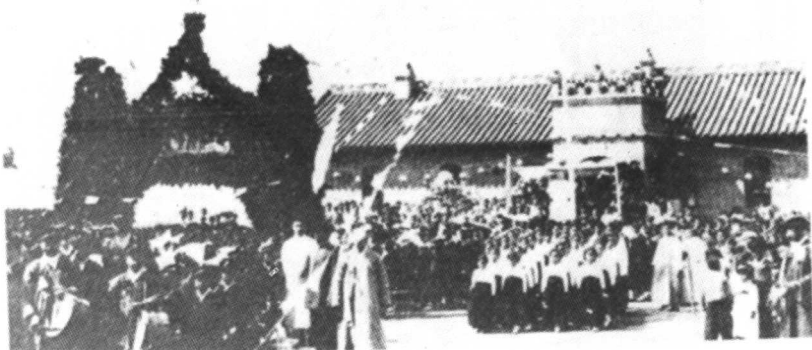


통정 윤동주의 고향집마당에서 문재림목사의 집례로 거행된 윤동주의 장례식(사진우의 글은 그의 사망일시와 장례식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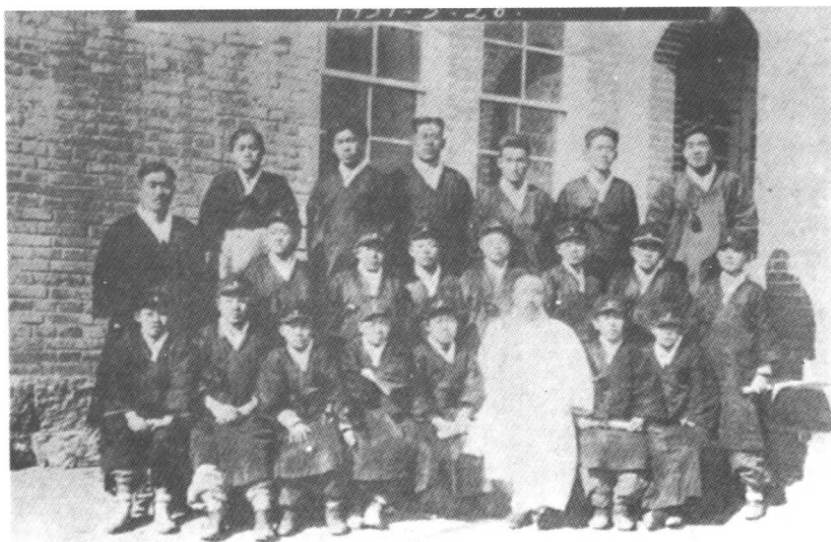


윤동주묘소의 묘비옆에 둘러앉은 가족들.

왼쪽에서부터 오협범(윤동주의 매제), 윤광주(윤동주의 막내동생), 윤혜원(윤동주의 누이동생), 윤영선(뒤줄, 윤동주의 당숙), 윤갑주(윤동주의 6촌동생)



명동학교 신교사 락성식(1918. 4. 9)



명동소학교 졸업식(1931. 3. 20) 앞줄 왼쪽 첫번째가 문익환, 앞줄 오른쪽 첫번째가 김정우. 두번째줄 오른쪽 첫번째가 윤동주, 세번째가 송몽규, 맨 왼쪽의 서있는분이 송창희선생님. 세번째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윤영춘 선생님



오오무라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윤동주묘소를 찾았을 때 비석(1985년 5월 중순)



새로 수선한 윤동주묘소



룡정중학교 교정에 세워져있는 윤동주시비



연세대학교안에 있는 윤동주시비

추천하는 글

밤하늘의 별 같은 시인—윤동주

김호웅(연변대학 교수, 문학박사)

1985년 윤동주가 처음으로 연변사람들에게 알려진 후 그의 고향과 생가가 그를 기리는 우리 민족의 거룩한 순례지가 되어 지금도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교와 묘소를 찾고 그가 살던 명동의 옛집을 찾고있다. 하지만 윤동주의 시를 소개한 책자 하나 없어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던차에 석화시인이 연변에서 최초로 윤동주의 대표적시들을 길이가 있으면서도 평이하게 해석한 책자를 펴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명동시절 윤동주의 친구였던 문익환선생은 자기의 친구 윤동주를 두고 《그를 회상하는것만으로도 언제나 나의 낮이 맑아짐을 경험한다》고 회상한바 있다. 수염이 허연 로인네가 까마득한 소년시절의 친구를 두고 《언제나 나의 낮이 맑아짐을 경험한다》고 했으니 윤동주의 인간적 성실성과 재능, 그의 애처로움과 장함을 가히 상상해볼수 있겠다.

윤동주는 중국 통정에서 태어나 일본 후쿠오카에서 마지

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겨우 27년하고 한달밖에 살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가 문학으로 남긴 업적과 그의 발자국에 새겨진 의미는 우리 문학사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룡정에 시심(詩心)의 뿌리를 박고 결백하고 희생적인 마음으로 앞세워 이슬바람에도 괴로와했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제단에 자기의 젊은 몸을 조용히 바친 그의 아름다운 시들은 그야말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이다.

윤동주의 생애와 그의 시가 가지는 의미를 세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

첫째, 그는 강인한 저항정신을 지녔지만 이를 사춘기소년과 같은 청순한 감각으로, 겸허하고 유연한 언어로 써나갔기 때문에 다수 독자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는다. 또한 그는 저항시인이었지만 그 기본정신은 결코 타민족에 대한 배타주의자가 아니라 평화주의이고 인도주의였다.

둘째, 그의 정신은 림치사상(廉耻思想)이다. 림치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서 예의(禮儀)와 더불어 참된 인간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그것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정신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 그의 사상은 정신적순결주의이며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림치사상과 다름없다.

셋째, 그가 남긴 가장 빛나는 시는 사명시(使命詩)이다. 우리 민족 또는 온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정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동주의 시를 통해 순수한 동심, 겸허

한 자세, 평화주의와 인도주의를 되찾을수 있고 자기반성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으로 거듭날수 있다. 더우기 우리는 윤동주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놀라운 자각을 하게 된다. 그것은 민족을 위한 사명이며 세계적인 평화를 위한 사명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명이다. 우리는 이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대렬에 나섬으로써 진정한 삶의 목표와 가치를 찾고 긍지를 갖게 된다.

석화시인은 많은 아름다운 가사와 시들을 창작해 독자들의 사랑을 널리 받는 우리 시단의 재능있는 시인이며 학자이다. 그는 다년간 윤동주의 시에 매료되어 깊은 연구를 해왔고 연변대학과 한국 배재대학교에서 같고 닮은 시적 안목과 재간으로 윤동주의 대표시들을 추려 다양한 방법론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유력한 문체로 평이하게 해석했다.

윤동주의 시를 접하는이들에게 길잡이가 될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독자들의 일독을 부탁드림과 아울러 청소년들의 필독서가 되리라 생각한다.

2006년 5월 10일, 와룡산언덕에서

차 례

추천하는 글
밤하늘의 별 같은 시인—윤동주 김호웅 /1

1. 서시 /1
밝은 별빛에 부끄러움없는 마음을 비춰 /3

2. 별 세는 밤 /5
아름다운 별빛에 닿아가는 부활의 의지를 /11

3. 자화상 /14
가을이 비낀 우물속의 추억 같은 사나이가 /18

4. 십자가 /21
쫓아오는 해빛과 꽃처럼 피어나는 피와 십자가와 /25

5. 초 한대 /28

광명의 제단에 드리는 위대한 제물의 향내 /31

6. 새로운 길 /35

건강한 희망이 꽃으로 피어나는 새로운 세계로 /37

7. 길 /40

길과 돌담과 쇠문과 잃어버린것과 /44

8. 병원 /47

병원뒤뜰의 풍경과 오래 참은 아픔이 /49

9. 소년 /53

강물속에 흘러간 사랑처럼 슬픈 얼굴이 /55

10. 눈 오는 지도 /57

아픈 리별은 기약이 없고 슬픈 가슴은 무너져내리고 /59

11. 돌아와 보는 밤 /62

어둠속에 저절로 익어가는 능금 같은 사상을 /64

12. 또 다른 고향 /66

꽃기는자의 끝없는 떠돌이운명을 /70

13. 무서운 시간 /74

일을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 /76

14. 간 /80

불타오르는 지성과 침전하는 매돌과 /83

15. 참회록 /88

욕되고 부끄러운 시간속을 걸어가는 슬픈 사람이 /91

16. 쉽게 씌여진 시 /94

시대처럼 올 아침과 최초의 악수를 /98

윤동주작품년보 /101

후기 /106

1. 서시

자필시고

주를 볼까 저 하늘을 두르러
 한참 부끄럼이 없기로는
 앞서 매이는 바람에도
 나는 귀찮아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추억이 가는 것은 사랑해야지
 그리고 ^한가래 추억이 잔가을
 그러니까 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 11. 20.

서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20일

밝은 별빛에 부끄러움없는 마음을 비취

시인 윤동주는 1941년 겨울 서울 연희전문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동안 통정과 서울에서 쓴 시작품들가운데서 일부 작품을 정선하여 초판 77부 한정판으로 연희전문학교졸업기념자선시집을 엮으려 하였다. 이 시는 시인이 그해 11월 20일 자선시집의 출판을 위하여 수십편의 자기의 작품가운데서 손수 18수의 작품을 골라내고나서 맨나중에 쓴 시이다.

시인은 당시 이 작품에 어떤 제목도 붙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시의 제목은 《무제》라고 하여야 정확할것이다. 이 시의 현재 제목 《서시(序詩)》는 사람들이 후에 붙인것이다. 1948년 1월 정음사에서는 시인이 손수 선정한 19수의 작품과 기타 작품 12편을 포함하여 31편의 작품을 모아 유고시집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를 출판하였다. 정음사의 이 1948년 초판본에서 이 시는 처음으로 《서시》라는 제목이 괄호안에 넣어져 붙여지고 그아래에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라고 씌여져 시집의 첫머리에 실리게 되었다. 1955년이후, 시인이 남긴 다른 작품들이 룽속 발굴되고 추가수록되어 시집의 판이 거듭되면서 이 시는 계속 《서시》라는 제목으로 권두에 실리게 되었다.

서시란 시집이나 장시의 머리부분에 실려서 후속시들의 성격을 예시하여주는 기능을 가진다. 이 시는 시인의 지적 고뇌와 서정이 단적으로 드러난 대표작으로서 시인의 시정신이